

Artist's Statement

유선태

나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라는 의미를 떠올릴 때 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 같은 묘한 느낌을 갖는다. 자연은 마치 구도자의 길 한 가운데에 거대한 동상처럼 우뚝 서 있는 철학자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자연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언어학적 의미를 갖기도 하며 '시작도 끝이 없는 상태'라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 독일의 문학가도 있다. 어쩌면 자연은 그 자체로 이미 예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작업에 있어서 나와 대상이라는 문제는 나(시간)와 대상(공간)라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시간은 내가 겪어온 삶, 기억, 고통, 기쁨, 호기심, 좌절 등의 경험과 정서가 각인된 나이트와 같은 축적된 시간들이다. 공간은 그러한 나의 삶을 채색하거나 성형할 수 있는 임의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캔버스나 나무, 오브제나 금속으로 이루어 지지만 나는 이 표현된 공간을 가상적 혹은 결론이 유보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이 공간 안에서 생각은 일시적이고 감성은 요동치고 있으며 표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림은 어느 순간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생각은 끝나지 않고 계속어진다. 어쨌든 그러한 부족함 들은 내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근원이기도 하며 나의 작업에 대한 왕성한 전투력을 배가시켜 주는 자극제이다.

예술이란 자신의 흐릿한 시력을 초점이 맞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정하는 일.

나는 궁극적으로 표현이 어느 범주에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회화 든 조각이든 공예 든 디자인이나 사진이든 그것들은 그냥 편의상 부르기 좋게 명칭 지워진 이름일 뿐이다. 각 영역들의 고유한 표현이 존재할지라도 나는 회화적인 조각, 장식적인 회화, 디자인 적인 조각, 회화

적인 사진 등 얼마든지 다르게 불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냥 표현이라는 단어로 족하지 않을까?

내가 오브제(Object)를 좋아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감정 때문이다. 오래된 오브제 혹은 길가에 폐기 처분되거나 버려진 장에 방치된 오브제들 보면 정(情)이라는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것 들은 표정이 있다. 찡그리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당당해서 도발적이기도 하며 가끔은 자신을 수줍게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그것들을 데려와서 먼지를 털어내고 씻길 때마다 켜켜이 쌓인 타인의 손길에 대한 그리움이라 할까 무언가를 한 자락씩을 걷어내는 느낌이 든다. 나는 아직도 끊임없이 오브제를 찾아 헤매이는 것은 내 마음속 한구석에 비밀스럽게 봉인해둔 그 설익은 감성 때문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본다.

나는 아뜰리에 문을 잠그고 나올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두고 온 느낌이 든다. 나는 과연 무엇을 두고 나온 걸까?

나의 그림에 있어서 노란색은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내 그림에서 건축적인 형태를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건축이 빛으로 이루어진 건축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때로는 힘들지만 반대로 끔찍하게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인생의 후회나 잘못 등과 같은 기억이나 흔적은 지울 수 없어도 그림은 언제든지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작가라는 직업이 나처럼 조금 느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직업이다.

내가 표현하는 대상에는 풍경이라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나의 작품에 있어서 이 풍경들의 상황은 대략 세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물론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분류이고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그것은 불변(不變)하는 것,

변화(變化)하는 것, 그리고 불변하는 것과 변화하는 그 사이의 중간적인 상황이다. 첫째로 내가 불변하는 것으로 규정짓는 풍경은 자연과 같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놓여진 풍경이다. 둘째로 변화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자연과 대립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풍경들이며, 셋째로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하는 상황은 이 두가지 영역을 재구성하거나 재조합 혹은 변형하여 이루어진 풍경들이다. 세번째 상황의 풍경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의 풍경이 적절한 긴장과 공존이 동시에 가능하다.

예술에 있어서 호기심은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훌륭한 동반자이다.

예술에 있어서 감정 이입(*einfulling*)이라는 미학적인 담론은 이미 사장된 논리지만 난 아직도 그 이론이 마음에 든다. 고백 하건데 예술은 꼭 스산한 가을바람을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해본다.

나는 얼마전 내 그림이 누군가를 치유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내 그림에 대하여 좀더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책임감 비슷한 감정이었는데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이 나의 개인적 만족과 나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단순한 수단만이 아닌 내 삶의 과업이 아닐까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다.

상상력이라는 망상을 현실의 화면으로 이끌어 내는 힘을 예술이라고 부른다.

나의 그림의 화면에는 두개 혹은 세개의 공간이 동시에 표현되는데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나의 삶)의 개념이 사실은 동일선상 있음을 가정(假定) 해서이다. 가령 예술을 바다위에 떠있는 배라고 여기고 바다를 시간이라 간주해보자. 시간의 바다 위를 떠가는 배의 앞부분(船首)은 바다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미래를 향하고 있고, 배의 중간부분(船腹)은 현재에 속하며, 배의 끝부분(船尾)은 바다의 시간으로는 과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는 과거가 없으면 뒤로 넘어질 것이고, 현재가 없으면 아래로 하강할 것이며, 미래가 없다면 앞으로 꼬꾸라져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배(예술)에게 있어서 과거는 현재이고 동시에 미래이다. 그것들은 차별이 없으며 항상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그래서 내 그림에 등장하는 이러한 시간의 공간을 동시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 동시적 공간 안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여행과 유희가 가능하다.